

“공공의료,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져야”

전매광정

박문옥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7월 17일부터 5일간 이어진 기습적인 극한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전라남도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편이지만, 순천시에서는 하천 급류에 납덩이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도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라남도도 각 기초지자체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을 빌려,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직결

필자는 오늘날 지방 공공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되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계기로 본격화되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진료 공백과 의료 접근성 저하가 현실화 되었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불편과 피로는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라남도는 그 피해를 더욱 직접적으로 감내해야 했다.

다행히 지난 6월 장미 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모색하며,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정책을 재설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재개는 물론,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대란이 우리 국민에게 남긴 상흔은 결코 가볍지 않다. 2024년 한 해 동안만도 전국에서 응급실 전원 거부로 인한 이른바 ‘뽕뽕이’ 사례가 5,657건에 달했고, 2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초과 사망자는 무려 3,136명에 달했고,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의료공백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구조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공의료체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 의료 기반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보, 응급의료 체계 유지 등 필수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0일, 필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차원의 운영 전환, 즉 광역지자체 소관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입장을 도 집행부와 도민 여러분께 전달한 바 있다.

목포시의료원은 코로나 19 당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막중한 책무를 수행했지만, 의료진 이탈과 재정 악화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사업’에서도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는 광역자치단체가 단위가 공공의료 책임 주제로 명확히 자리매김해야 할 때다.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책임 강화는 단순한 행정 구조 변경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직영 운영은 광역 단위 인력 운영과 시설 투자를 가능케 하며, 공공의료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전남도가 변화 선두에 서야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는 광역지자체 내의 권역별 협력 진료 체계가 가능해지며, 광역 차원의 응급·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포괄적 공공의료 기능도 체계화될 수 있다. 의료인의 장기근속 유도와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국민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이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운 지금, 지방정부,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지역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광역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지금이 바로 그 책임을 다할 시점이다. 전라남도가 그 변화의 선두에 서기를 기대한다.

아버지를 그리며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무정한 그러면서 어머니와 나의 세상 중심에 놓인 비정한 장벽이 었다.

그 대정마루는 아이인 나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주 많은 의미를 안겼을 것 같다. 사람 사이엔 거리가 있고 그 거리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따뜻한 숨결 한 번 건네만 지 못한 채 자라났다. 그런 내게 아버지란 존재도 생어서 찍은 누렇게 변하여 흐트러진 단 한 장 사진으로만 겨우 남아 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어떻게 그런 사진을 찍었을까도 알 수 없는 그러니 그 사진조차 내겐 아무런 기억의 단서도 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여름이 오고 6월만 되면 기억도 없고, 목소리도 모르고, 얼굴도 떠오르지 않는 아버지란 존재가 통증처럼 가슴을 압박하곤 했다. 그리움이란 원래 그런 것일까. 있었던 것을 생각하는 것도 아닌,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도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감정일까.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느냐고 묻곤 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 이야기를 나눈 추억, 손을 잡은 감촉, 품의 냄새, 웃음소리 같은 그 어떤 것도 내겐 없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 적도 없었고, 나는 아버지의 어깨를 한 번도 붙 적이 없다. 아니 아버지가 나를 한 번이라도 안아준 적이 있는지 보다 한 번이라도 나를 보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감정은 기억의 산물일 수 없다. 그저 생의 근원에 뿌리박힌 허기 같은 것이다. 허망한 깊이로 다가온 간절함, 있었으면 하는 바람(願)이 만들어 놓은 안타까운 기대, 기억나지 않기에 더더욱 상상하게 되는 그리움인 것 같다.

어머니도 내가 세 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단다. 당신 나이 스물아홉. 세 살 차이였던 두 분은 나를 남겨둔 채 삼 년 간격으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스물아홉으로 생을 마감하고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그렇게 모정(母情)도 부정(父情)도 모른 채 삶의 가장 맨 앞자리로 홀로 던져졌다. 그 어린 날의 나는 어떤 감정도 알지 못한 채, 외가 식구를 틈에서 자랐고, 어머니와의 3년간은 대정마루를 경계로 견우와 직녀처럼 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하며,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짐작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내 삶은 ‘그리움’이라는 정서 위에서 부초(浮草)처럼 자라 온 것 같다. 하지만 어쩌면 실체 없이도 나를 울게 하고, 보이지 않아도 삶을 이끌어가게 한 힘. 아버지와 나 사이 단 한 장 사진과 몇 줄도 안 될 전해진 이야기 뿐인 그것들이 세월을 이기고 건너는 이상한 운도가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내가 모르는 생의 시작점에서부터 흘러온 따뜻함이다.

올해도 여름이 왔다. 무더위가 들기 전의 바람은 유독 선선하고, 해질 무렵의 하늘은 어딘가 익숙한 빛을 띠고 있다. 아버지 삶의 시간을 무려 두 배로 훨씬 넘게 살아버린 내게 아버지는 없던 존재이면서 있는 존재로 전설처럼 살아계신다. 하지만 아버지도 하늘 어디에선가 이 계절과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을까. 올해도 나의 생일이 가까워지면, 당신이 떠난 날도 함께 다가올 텐데, 당신이 떠난 원인이 된 이 여름이 먼저 당신을 생각나게 하네ю. 유월과 동짓달 그 사이에서 어쩌면 나는 그리움을 조금씩 더 품에 안은 채 당신으로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설

광주 싱크홀 공포 정부 예산 지원 절실

광주 시내 지하 시설물 노후화와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 등으로 광주 시내 곳곳의 지반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싱크홀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노후화된 상하수도인데도 이를 교체할 예산이 부족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법적 근거 미비와 인력 부족, 장비 부재 등으로 지자체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봉착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107건 중 하수시설 손상·파손이 64.4%에 달하는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난 2020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55건이 발생했고,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쏟아진 폭우 때도 싱크홀 발생 9건, 도로 파임과 땅 꺼짐 473건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한 싱크홀 발생은 상하수도 시설 등 노후화된 지하 시설물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상수도는 4,117km 중 절반이 넘는 2,186km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다. 30년 이상 된 것도 805km(19.5%)였다. 하수도는 4,570km 중

20년 이상 지난 배관이 65%인 3,006km에 달했다. 여기에 광주지역은 실트 모래 자갈 등 불균질 물질이 지층에 분포해 있어 지반 자체가 약한 데다 지하철 공사 장기화 등으로 싱크홀 발생에 취약한 상태다.

하지만, 광주시의 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싱크홀 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시가 정비한 노후화한 상수관로는 36km에 그쳤고 정밀조사를 통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107km 중 올해 18km에 대한 정비만 진행 중이다. 한 해에 국비 30%를 포함해 200억~2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지만, 광주 시내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노후화한 관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땅을 파지 않고도 배수관·하수관 등 지하 구조물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지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GPR 장비가 있지만, 대당 수천만 원에서부터 10억 원에 이르는 구입비와 대당 최소한 3명의 인력이 필요해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광주시민들이 싱크홀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지금은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다.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 속도 내라

전남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아 정부가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통상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현안이 언급돼야 논의에 속도가 붙는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기후에너지부 유치가 자칫 전남도의 ‘짜사랑’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남도는 그동안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위해 김영록 지사가 직접 나서며 공을 들여왔다. 김 지사는 지난달 11일 “에너지 수도로서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최적지”라며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밝혔다. 또 지난달 20일 목포 신항만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반드시 에너지 수도인 전남에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와 관련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1일 채택한 인사청문 경

과 보고서에 전남 유치와 관련한 어떠한 기술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의 기후에너지부가 언제 신설되는지, 세부 업무 권한 조정에 대해 별도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등에 대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 후보자가 “별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문을 정리한 ‘종합 의견’에서도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와 관련한 항목이 없었다.

인사청문회의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역 국회의원이 없어서 전남 유치와 관련한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전남도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상 최악의 폭우에서 보듯 기후에너지부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될 것이 확실하다. 해양수산부가 해양도시 부산으로 갖듯이 기후에너지부 역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에너지 수도 전남으로 오는 게 타당하다. 정부의 신속한 추진과 전남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기대한다.

에세이

최원현

수필가·문학평론가

(사)한국수필가협회 명예이사장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이사



아버지가 가신 지 일흔네 해나 되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는 그해 동짓달, 나는 겨우 둘을 갓 넘긴 아기였고, 아버지는 스물아홉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단다. 내 생일이 동짓달 열이틀인데, 아버지의 기일은 스무엿새. 고작 열나흘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나는 같은 달 안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운명을 지니게 된 셈이다.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늘 두 개의 시간을 품는다. 하나는 나의 생을 기대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부재(不在)를 새기는 시간이다.

아버지는 경찰이셨다고 한다. 6·25 전쟁 중이었다. 그런 혼란과 긴장의 시절에 피난 중인 외가에서 태어난 나였으니 아버지는 과연 한 번이라도 나를 찾아와 보셨을까. 아직도 그제 궁금하다. 어머니는 결핵을 앓았기에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 품에도 한 번 안겨보지 못한 채 격리되어 자라야 했단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단순히 방 하나의 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건널 수 없는 생의 강이 놓여 버렸었다. 대정마루는 단순한 구조물적 거리가 아니었다. 엄마와 아기 사이의 온기를 냉혹하게 차단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 속 세상



소녀상 옆 일장기 든 우익단체

2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부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 주장하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국민계몽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이곳을 밤낮으로 지켜오던 ‘반일행동’이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항의하며 철수하자, 선순위 집회 신고자인 우익단체들이 이곳을 차지한 것이다. 연합뉴스